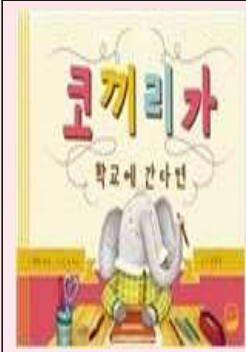




송파구립도서관

봄맞이 추천도서 60선





코끼리가 학교에 간다면

엘렌 피셔, 로라 우드 저 | 어썸키즈 | 2018년 | 36쪽 | 11,000원

만약 코끼리가 학교에 간다면? 올빼미가 숲속 교실에 간다면? 얼룩말, 개구리, 스컹크 등 다양한 동물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법이 펼쳐집니다. 책을 통해서 동물들의 특성과 그들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처음 학교에 가는 어린이들이 낯선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림책입니다.



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니?

마스다 미리, 하리사와 잇페이 저 | 책속물고기 | 2016년 | 40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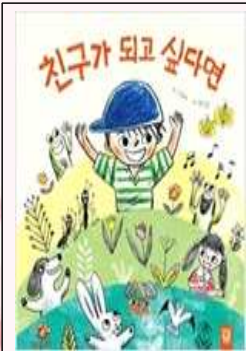
가파른 길, 울퉁불퉁한 길을 만났을 때, 넘어졌을 때, 남보다 여리고 작게 느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마자동차는 그런 순간에도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희망의 상자, 용기의 상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른을 위한 만화 [수짱 시리즈]로 유명한 마스다 미리 작가가 '내 안에 가진 힘'으로 어린이를 응원합니다.



언제나 널 사랑한다

이윤우 저 | 비룡소 | 2015년 | 26쪽 | 11,000원

달빛이 환한 어느 밤, 날개를 펴고 홀로 세상으로 날아가야 하는 아기 부엉이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작은 나뭇가지에 내려앉자 달님이 말을 건넵니다. 드넓은 하늘을 홀로 날아야하는 아기 부엉이에게는 할 수 있다는 따뜻한 격려와 내 안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겠지요. 2015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이윤우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면

신경아, 김민준 저 | 키즈엠 | 2017년 | 32쪽 | 10,000원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경계가 없지요. 하지만 '친구'는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지요. 이 책은 개미, 나비, 강아지와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계 맺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도 안 떨려

주디스 비오스트, 소피 블랙올 저 | 현암주니어 | 2017년 | 32쪽 | 13,500원

혼자서는 잘되던 것도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 누구나 한번쯤 있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연습한데다 행운을 부르는 파란 장화에 멋진 주머니가 달린 바지까지 입었지만 차례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떨려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긴장감을 이겨내고 모두의 박수를 받는 모습에서 스스로를 믿고 극복하는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버스

남강한 저, 남강한 그림 | 북극곰 | 2016년 | 44쪽 | 15,000원

혼자 버스를 탈 수 있을 만큼 자란 아기 돼지는 엄마와 인사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버스비를 내고 자리로 돌아온 아기 돼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린이가 처음 경험하는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묘사했으며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봄이다

정하섭 저, 윤봉선 그림 | 우주나무 | 2017년 | 40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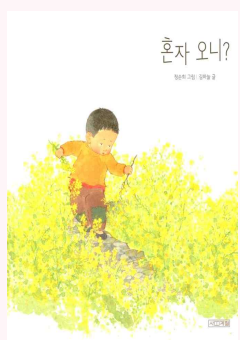
봄이 되고 싶은 이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꽃샘추위가 여전하긴 하지만 겨우내 웅크렸던 생명들은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스스로가 봄임을 깨닫습니다. 천천히 오는 봄을 시적인 어조로 풀어냈으며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을 세밀화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엄마 껌딱지

카롤 피브 저, 도로테 드 몽프레 그림, 이주희 옮김 | 한솔수북 | 2017년 | 32쪽 | 13,000원

엄마 껌딱지인 한 아이는 엄마를 너무나도 좋아해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엄마 치마에서 살면 어떨까?' 엄마와 떨어지기 싫은 아이의 심리에 공감하면서 발랄한 상상을 즐길 수 있는 그림책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라는 주제를 사랑스럽게 풀어냈습니다.



혼자 오니?

김하늘 저, 정순희 그림 | 사계절 | 2017년 | 44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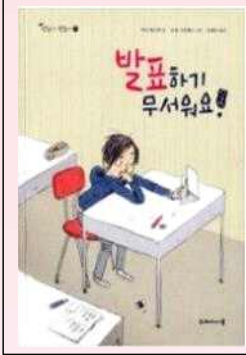
형과 함께 놀러 나온 경이. 실컷 놀다보니 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은 먼저 집에 간 것일까요? 처음으로 혼자 가기로 한 경이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집을 찾아 나서고 형은 그 뒤를 몰래 지켜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글과 은은한 색채로 그린 그림이 돋보입니다.



곧 태어날 동생에게

프레데릭 케슬러 저, 알랭 피롱 그림, 이화연 옮김 | 산하 | 2016년 | 26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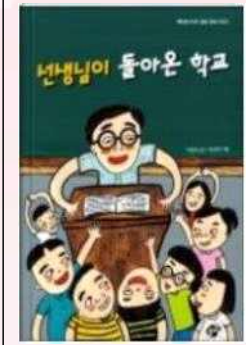
형과 곧 태어날 동생이 주고받는 편지 형식의 그림책으로 동생이 생기면서 느끼게 되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아이의 눈높이로 표현했으며 상상력과 호기심이 더해진 대화를 통해 가족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발표하기 무서워요!

미나 뤼스타 저, 오실 이르겐스 그림, 손화수 옮김 | 두레아이들 | 2017년 | 44쪽 | 10,000원

내성적 성격에 의기소침하고 걱정이 많은 주인공 알프레드는 어느 날 동물소개에 대한 글짓기 발표숙제를 받게 됩니다.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알프레드는 배도 아프고, 입맛도 없어지게 되지만 스스로 긴장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발표에 성공하게 됩니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도서입니다.



선생님이 돌아온 학교

박현숙 저, 이상미 그림 | 꿈터 | 2017년 | 180쪽 | 11,000원

주인공 태석이와 그의 친구들은 같은 반 친구인 상태를 왕따를 시킵니다. 선생님은 훈계 대신에 국어시간에 역할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역할극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바꿔 보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어른들이 개입한 일방적인 문제해결보다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1학년 1반

현주 글·그림 | 웃는돌고래 | 2017년 | 40쪽 | 12,000원

처음 학교생활을 앞두고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예비 초등학생, 학교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1학년 1반에는 거울 공주, 호기심 대장, 방귀 대장, 울보 등 다양한 모습의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1학년 1반 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양한 개성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자국 아이

이나영 저, 이갑규 그림 | 스킨라 | 2017년 | 112쪽 | 9,800원

초등학교 3학년 박석동.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 선생님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는 악동입니다. 어느 날 자신과 똑같이 생긴 발자국 아이가 나타나고 자신은 투명인간이 됩니다. 박석동은 자기 행세를 하고 다니는 발자국 아이를 지켜보며 깨달음을 얻고 악동에서 착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는 책입니다.



행복한 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저, 알베르토 바스케스 그림, 박나경 옮김 | 봄별 | 2016년 | 72쪽 | 9,800원

우리는 행복에 대해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주입시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이에게 행복일까요? 이 책은 전형적인 사악한 늑대인 삼촌과 '늑대답지 않은' 착한 아기 늑대를 통해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팍스(PAX)

사라 페니패커 저 | 존 클라센 그림 | arte 출판사 | 2017년 | 310쪽 | 15,000원

친구처럼 지내던 피터와 여우 팍스는 전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야생에서 태어났지만 사람의 손에서 자란 팍스는 갑자기 낯선 야생 환경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피터는 팍스를 포기했다는 슬픔에 팍스를 찾기 위해 멀고 고된 여정을 떠납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은 소년과 여우의 우정을 통해 전쟁과 평화, 동물과 사람,友情, 책임 등 많은 깨달음을 안겨 줍니다.



일곱 개의 화살

이현 저 | 이지혜 그림 | 문학동네 | 2017년 | 2책 | 각 11,500원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마라, 동돌, 이도가 어둠의 세계에 맞서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신화와 설화에 등장하는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순수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른들 품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어린이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의 무게

사라 크로산 저 | 가람어린이 출판사 | 2017년 | 239쪽 | 12,800원

우울증에 걸린 엄마, 집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든 아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12살 소녀 카시엔카. 어린이의 눈을 통해 본 편견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운문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카시엔카의 모습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어린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운동장의 등뼈

우미옥 저 | 박진아 그림 | 창비 | 2017년 | 132쪽 | 9,800원

매일 지나다니는 운동장이 거인처럼 일어서서 말을 걸어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책의 일곱 가지 이야기는 일상의 공간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환상적인 공간으로 바꿔 놓습니다. 유쾌한 상상력 뒤에는 현실을 돌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심 갖게 합니다. 새출발이 부담된다면 이 책을 읽으며 유쾌한 상상에 빠져보기를 권합니다.



코드네임 X

강경수 글·그림 | 시공주니어 | 2017년 | 308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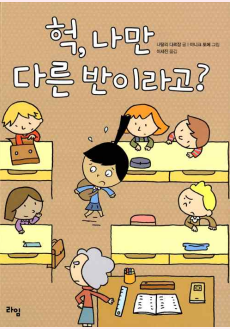
파랑이는 어느 날 발견한 일급비밀 수첩을 읽다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과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정부기관의 첩보원인 11살의 엄마를 만나고 엄마와 파트너가 되어 범인 검거에 나섭니다. 볼로냐 라가치 상을 수상한 '강경수'작가의 어린이를 위한 첩보 액션물로, 만화책 같으면서 동화책 같기도 한 구성으로 독특한 유머감각을 뽐내는 책입니다.



1학년 3반 김송이입니다!

정이립, 신지영 저 | 바람의 아이들 | 2017년 | 60쪽 | 9,500원

첫 1학년이 되는 신입생 송이의 낯선 학교생활 적응기로 1학년 학교생활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주인공인 송이의 마음에 대해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헉, 나만 다른 반이라고?

나탈리 다르장 저 | 라임 | 2017년 | 48쪽 | 9,800원

단짝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만 다른 반이 된 질리에트의 모습을 통해 일상에서 자주 겪게 되는 질문들을 던지고, 이럴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홉 살 함께 사전

박승우 저 | 창비 | 2018년 | 152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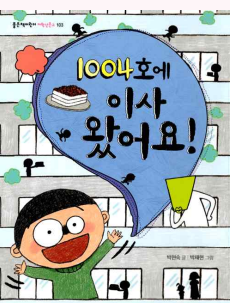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여러 표현들에 대해 담은 책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새 친구를 사귀고 새 선생님을 만나며 책에서 다룬 표현과 비슷한 상황을 접했을 때 현명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1학년을 부탁해

이서윤 저 | 풀빛 | 2016년 | 72쪽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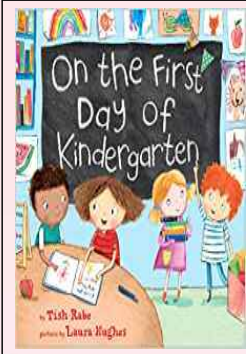
처음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될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학교 가기 전 궁금했던 것들을 책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004호에 이사 왔어요!

박현숙 저 | 좋은책어린이 | 2017년 | 64쪽 |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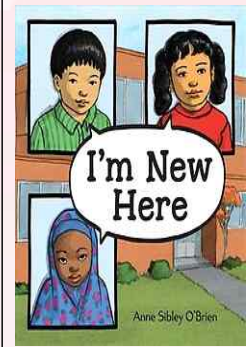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가서, 이웃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 친구들과도 헤어져 혼자가 된 주인공이 새출발을 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보여줍니다.



On the First Day of Kindergarten

Tish Rabe 저 | Harpercollins Childrens Books | 2016년 | 32쪽 | 12,7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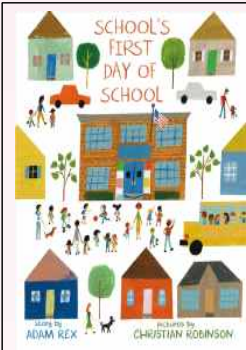
유치원에 가는 첫 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엄마 아빠와 떨어지는 첫 발걸음은 두렵고 무겁기만 합니다. 이 도서를 통해 새 친구 사귀기부터 즐거운 체육시간까지 즐거운 일이 가득한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New Here

Anne Sibley O'Brien 저 | Random House | 2015년 | 32쪽 | 21,6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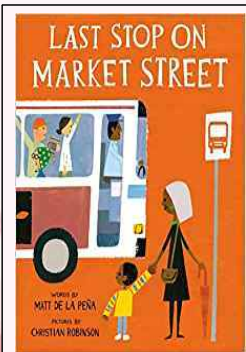
소말리아, 과테말라, 한국 등 서로 다른 나라와 언어를 가진 마리아, 진, 파티마가 미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낯선 언어와 환경에 두려워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낯설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새로운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는 내용입니다.



School's First Day of School

Adam Rex 저 | ROARING BROOK PRESS | 2016년 | 40쪽 | 2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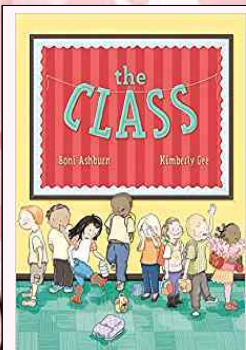
학교의 첫날, 관리인과 둘만 있던 조용한 나날들을 좋아하던 학교는 내일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는 말에 겁을 먹습니다. 첫날이라 학교에 적응이 안 된 아이들만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학교도 긴장되고 걱정하지만 하루 일과를 통해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이들 시점이 아닌 학교라는 시점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Last Stop on Market Street

Matt de la Peña 저 | PUFFIN | 2017년 | 32쪽 | 13,9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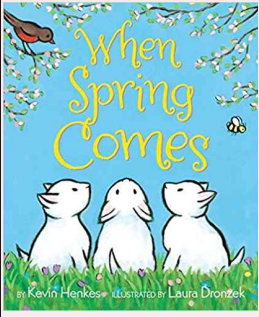
그림책 최초로 2016년 뉴베리 상과 칼데콧명예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주목을 받은 책으로 어린 손자 CJ와 할머니가 마지막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내용입니다. CJ의 질문과 현명한 할머니의 대답을 통해 세상은 좀 더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도서입니다.



The Class

Boni Ashburn 저 | Simon & Schuster | 2016년 | 40쪽 | 18,090원

알람이 울리고 마을의 어린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중요한 하루를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대되거나 걱정되거나, 짜증이 나거나 서로 다른 기분으로 준비를 하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첫 날 학교에 가기위한 준비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 새 학기 학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도록 도와주는 작품입니다.



When Spring Comes

Kevin Henkes 저 | Greenwillow Books | 2016년 | 40쪽 | US\$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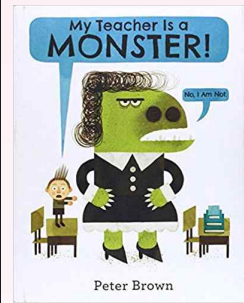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겨울. 하지만 이 겨울도 물러날 때가 온답니다. 두텁게 쌓인 눈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사라지고, 칙칙한 갈색 빛의 풀들도 점차 푸른 빛 옷으로 갈아입지요. 겨울잠을 자던 씨앗들도 땅 위로 나와 기지개를 켜드립니다. 이 마법 같은 변화에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도 나와 뛰어노는 아름다운 봄을 함께 맞이해보아요.



And then It's Spring

Julie Fogliano, Erin E. Stead 저 | Roaring Brook Press | 2012년 | 32쪽 | US\$1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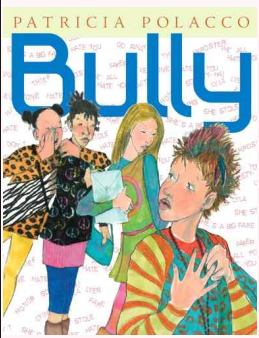
'A Sick Day for Amos McGee'로 칼데콧상을 수상한 일러스트레이터(삽화가)의 작품! 한 소년이 봄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땅에 씨앗을 뿌린 후 일주일이나 지나고, 또한 주가 지나도 땅의 색은 여전히 Brown입니다. 그러다 또 다른 한 주가 지나고... 한차례 비가 지나가고 해가 나온 어느 날, 온 세상이 Green으로 변했습니다. (번역서: 봄이다!)



My Teacher Is a Monster! (No, I Am Not.)

Peter Brown 저 |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 2014년 | 40쪽 | U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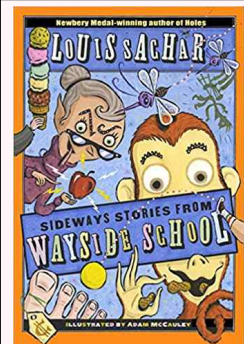
Bobby의 학교 선생님 Ms.Kirby는 쿵쿵쿵쿵 걷고 매일 소리를 지르는 아주 무서운 괴물 선생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Bobby는 우연히 공원에서 Ms.Kirby를 만나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과연 이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또 왜 Ms. Kirby가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었는지 책에서 함께 찾아보아요!



Bully

Patricia Polacco 저 | G.P. Putnam's Sons Books for Young Readers | 2012년 | 48쪽 | US\$1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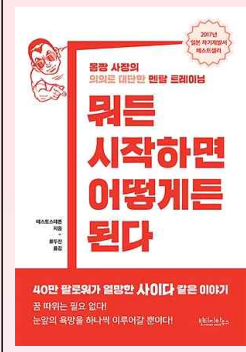
새 학교로 전학을 온 소녀 Lyla. 그 곳의 카페테리아에는 인기그룹 테이블이 있는데, Lyla는 이를 동경하여 테이블의 멤버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SNS로 다른 친구들의 뒷담화를 일삼는 등 부정적인 멤버들의 모습에 Lyla는 그녀들과의 멀어지려 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녀들은 Lyla에 대한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과연 Lyla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Sideways Stories from Wayside School

Louis Sachar 저 | HarperCollins | 2003년 | 128쪽 | US\$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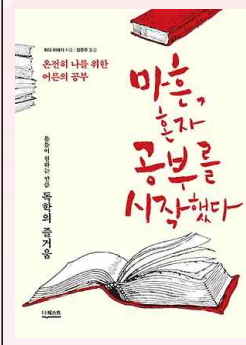
Wayside School은 한 층에 교실이 하나씩 있는, 매우 높은 30층짜리의 괴상한 건물의 학교입니다. 이 곳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Sammy, 학생들을 사과로 바꿔버리는 Mrs.Goff 등 별난 아이들과 별난 선생님이 기상천외한 소동을 벌이는 별난 학교인데요, 이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가볼까요? (번역서: 웨이싸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뭐든 시작하면 어떻게든 된다

테스토스테론 저 | 빈티지하우스 | 2018년 | 208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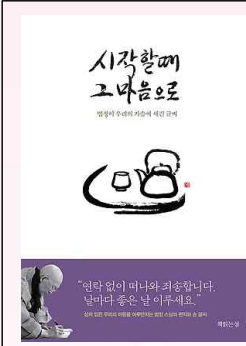
목표 달성을 위한 멘탈갑 트레이닝 같은 실용적인 내용과 독특한 유머 코드, 에두르지 않고 던지는 사이다 같은 돌직구로 구성된 책을 읽고 당신도 해보면 됩니다. 하던 대로 뭐든 시작하면 어떻게든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흔, 혼자 공부를 시작했다

와다 히데키 저 | 더퀘스트 | 2017년 | 188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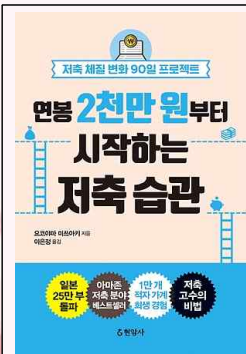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는 명언과 딱 맞는 책. 공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나를 위한 공부이자 독학의 즐거움을 깨달은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법정 저 | 책 읽는 섬 | 2017년 | 192쪽 | 1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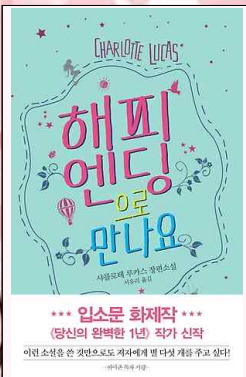
7년 전 우리 곁을 떠나간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발자취, 타 종교와 두루 교류했던 이야기, 지인과 도반들에게 보낸 편지와 선시를 손 글씨와 함께 엮은 책입니다. 붓으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스님의 편지는 용기와 격려가 되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연봉 2천만원부터 시작하는 저축 습관

요코야마 미쓰아키 저 | 현암사 | 2018년 | 232쪽 | 12,000원

연봉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돈 모으는 습관이 평생 갑니다. '소비, 낭비, 투자'로 지칠 때까지 시뮬레이션!! 1만 개 적자 가계를 회생시킨 저축 고수가 알려주는 돈 모으는 습관의 비밀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해봅시다.



해피엔딩으로 만나요

샤를로테 루카스 저 | 북핼 | 2018년 | 632쪽 | 1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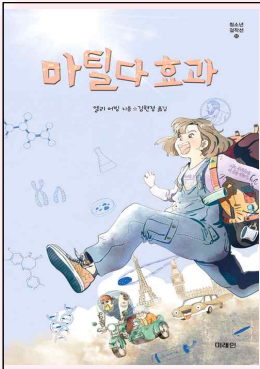
해피엔딩을 사랑하는 여자와 아픈 기억을 잃어버린 남자의 동상이몽 "인생 재할" 분투기!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깃들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책을 읽어봅시다.



달처럼 동그란 내얼굴

미래유 디스테로 저 | 담푸스 | 2018년 | 183쪽 | 11,000원

통통하고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스키아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를 통해 외모나 우정, 사랑과 같은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스키아는 달라졌고, 자신이 원하던 모습으로 이제 막 활주로서 이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틸다 효과

엘리 어빙 저 | 미래인 | 2018년 | 243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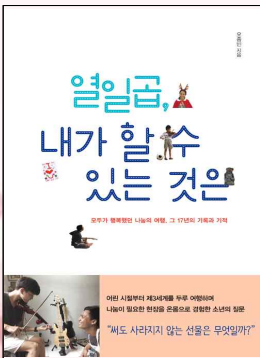
"넌 어린아이일 뿐이잖니.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만들었을 것 같지가 않구나." 책의 제목인 '마틸다 효과'라는 단어는 이 책의 주인공인 마틸다와 그녀의 할머니가 1,815km나 되는 여행을 떠난 이유입니다. 노벨상을 빼앗긴 할머니와 여자라서, 어려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행동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명가 마틸다의 짜릿한 모험은 강렬한 긍정의 힘을 전달합니다.



베이비 박스

박선희 저 | 자음과 모음 | 2018년 | 224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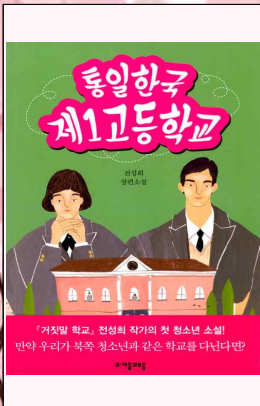
베이비박스란 갓난아이를 비밀스럽게 놓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리사'는 베이비 박스가 고향입니다. 태어나서 바로 그곳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지만 양어머니와의 갈등과 갖은 인종차별로 인한 정체성 혼란 속에서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으로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제목은 심오할 것 같은 책이지만, 십대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사실적이지만 쉽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문장력으로 많은 계층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열일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중빈 저 | 북하우스 | 2017년 | 216쪽 | 12,800원

한 소년이 엄마와 함께 거쳐 온 '나눔의 여행'이 어떻게 진화하고 성숙해져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네가 무엇을 지녔든, 나누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엄마의 말씀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열일곱의 작가는 나눔이라는 행위를 꾸준히 이어나갈 때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과, 그것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한 기적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

전성희 저 | 자음과모음 | 2017년 | 224쪽 | 12,000원

'통일한국에서 남과 북의 학생이 함께 학교에 다닌다면, 누가 학생회장이 되어야 할까?'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 소설의 출발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가 단일팀으로 출전을 했고, 북한 유명 예술단이 남쪽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멀지않은 미래에 일상이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 통일, 후 통합' 통일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제1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결말이 궁금하지 않은가요? 꼭 읽어 보기 바랍니다.



생각의 주인은 나

오승현 저 | 풀빛 | 2017년 | 296쪽 | 15,000원

<생각의 주인은 나>는 따돌림, 차별, 내적갈등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책입니다. '공동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소년들에게 제목 그대로 생각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열일곱 살의 욕망연습

안광복 저 | 사계절 | 2016년 | 224쪽 | 1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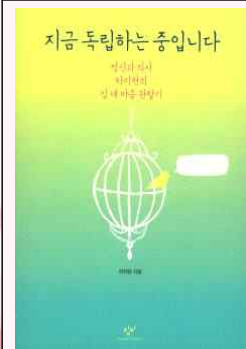
<열일곱 살의 욕망연습>은 '좋은 욕망이란 무엇인지', '욕망을 어떻게 띄워 나갈지'를 철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책입니다. 긴 시간 철학 교사로 재직하신 작가가 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목표를 꾸준히 가꿀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무너뜨리는 버릇까지 고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생의 설계를 막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짜 공신들이 쓰는 미래 자서전

임재성 저 | 더디퍼런스 | 2017년 | 244쪽 | 15,000원

현직교사들에게 수많은 찬사를 받은 <미래자서전 쓰기>는 진짜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청소년들에게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설계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생의 분명한 좌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하지현 저 | 창비 | 2017년 | 212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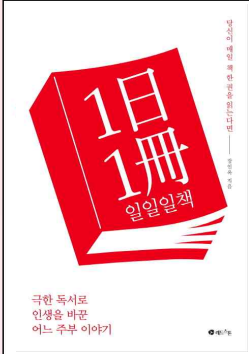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책입니다. 혼한 위로와 공감보다 심리학 및 의학의 최신 지식들을 활용해 심대의 마음 속 혼란과 갈등의 정체를 면밀히 밝혀줍니다. 새로이 출발을 시작하는 독자들에게 마음 속 갈등과 고민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꿈꾸는 십대가 세상을 바꾼다.

김지혜 저 | 위닝북스 | 2017년 | 268쪽 |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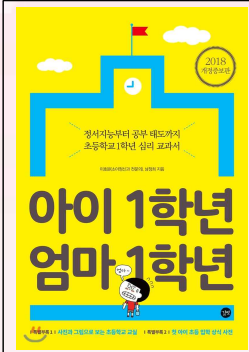
심리상담사 김지혜 작가의 책 <꿈꾸는 십대가 세상을 바꾼다>는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방향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청소년들의 지친 마음까지 다독여줍니다. 십대, 교사, 부모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일일책

장인옥 저 | 레드스톤 | 2017년 | 240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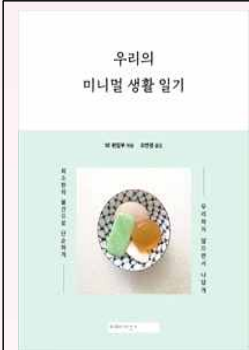
평범한 주부였던 저자는 39세 되던 생일날 독서를 결심한다. 그로부터 3년, 1000권을 독파한 그녀는 현재 눈부신 인생을 살고 있다. 일일일책을 시작하면서 삶의 행복을 발견하고, 삶의 고비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 독서는 평등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독서를 통해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아이 1학년 엄마 1학년

이호분, 남정희 저 | 길벗 | 2017년 | 256쪽 | 14,000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예비 초등생 학부모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학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다. 새출발을 하는 아이가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필요한 준비를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우리의 미니멀 생활 일기

SE편집부 저 | 미메시스 | 2017년 | 280쪽 | 13,800원

일본의 인기 인스타그램과 블로거 24인의 의식주에 대한 미니멀 라이프를 담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최소화가 아닌 개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삶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노하우를 감각적인 사진과 함께 담아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감성과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에 감사하게 된다.



이혼해도 괜찮아

김수진 저 | 미래세움 | 2017년 | 260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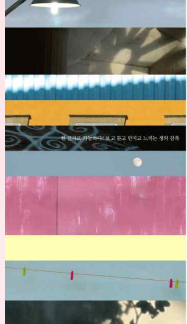
'서른셋, 이제부터 시작이다'
스물여섯 어린 나이에 장밋빛 인생을 꿈꾸던 저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마저 버려야 했던 날들 속에서 저자는 이혼을 하고 현재 두 아이의 엄마, 작가, 심리학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 혹은 지금의 결혼 생활을 더욱 잘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돈 정리의 마법

이치이 아이 저 | 한국경제신문사 | 2017년 | 212쪽 | 12600원

매년 끊임없이 상승하는 물가와 그에 비해 증가하지 않는 소득의 불균형 속에서 과연 돈을 모은다는 것이 실현가능한 일일까요? 이 책의 저자이자 일본의 스타 자산 상담가인 이치이 아이는 돈이 흐르는 통로를 찾고 그 통로를 정리하는 것 만으로도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스타 자산 상담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역경 극복 스토리와 자산 운영 노하우가 담겨있어 독자들의 큰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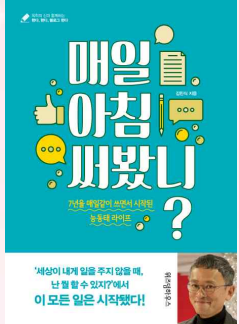


한글자사전

한 글자 사전

김소연 저 | 마음산책 | 2018년 | 400쪽 | 14,000원


우리말에서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얼마나 될까요? 작가는 한 글자의 단어들을 모아 한 권의 사전처럼 나열했지만 그 뜻은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산문집으로 엮었습니다. '매'라는 단어를 "아이였을 때에는 어른으로부터 가해졌지만 어른이 되면 양심으로부터 가해져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는 작가만의 뜻풀이를 보고 있으면 한 글자의 어휘로도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화두를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매일 아침 써봤니?

김민식 저 | 위즈덤하우스 | 2018 | 248쪽 | 13800원


매일같이 써보니 인생이 달라졌다고 PD이자 파워 블로거인 저자는 말합니다. 쓰기에서 시작된 능동태 라이프가 매일의 기록으로 쌓여 비범한 삶이 되고, 결국은 쓰는 인생이 남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SNS시대에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쉽게 세상과 소통하고 나를 알릴 수 있는 도구로 블로그를 선택했으며, 글쓰기와 블로그 운영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살린 내용으로 재미있고 쉽게 읽혀지는 책입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공감하기 좋은 책입니다.



모모요는 아직 아흔 살

무례 요코 저 | 이봄 | 2018년 | 272쪽 | 15,300원


'카모메 식당'으로 유명한 작가 무례 요코의 에세이집입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외할머니 '모모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처음배우는 화투가 너무 재미있어 7시간이나 몰두하는 모모요 할머니의 모습에 놀라움을 넘어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은 아흔 살의 모모요 할머니와 함께 책 속으로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소년아 나를 꺼내줘

김진나 저 | 사계절 | 2017년 | 196쪽 | 11,000원

짝사랑으로 끝나는 첫사랑이지만, 주인공 '시지'는 '열'을 고작 한 3시간 만난 게 전부일지라도, 파도가 치듯 매일의 감정 변화를 이렇게 잘 표현한 소설이 있을까 싶습니다. 단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애트함과 때로는 미움까지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온갖 예민한 18살 사춘기 소녀의 감정을 오롯이 나타냅니다. '시지'의 지나친 망상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꿈과 상상은 짝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느 날 다가올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저 | arte | 2018년 | 295쪽 | 14,000원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철학서이자 판타지 소설입니다. 고서점을 운영하던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소년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말하는 고양이가 책을 구해 달라며 주인공에게 다가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설 속에는 책을 대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 하는데 현대인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혹은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책속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들과 고전작품, 인용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책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작품들과 만나보고 싶어지는 소설입니다.